가슴으로 낳은 30여 딸의 어머니

37년간 30여 고아 거둔 中 비구니 창미아오 스님

37년간 30여명 고아의 엄마 노릇을 해온 중국의 한 비구니 스님의 감동적인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3월 10일 영국언론 'Daily mail'은 장시(江西) 성 간저우(贛州)시 닝두(B都)현에 위치한 한 사찰의 주지 창미아오(52) 비구니 스님을 소개했다. 'Daily mail'은 "혹자는 '사랑'이 가장 강력한 종교라고 말한다. 이 비구니 스님이 바로 그 증거"라며 37년간 여아 30여명을 손수 길러온 창미아오 스님의 사연을 보도했다.

창미아오 스님이 고아들을 거두기 시작한 것은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창미아오 스님은 절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나갔다가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다. 스님은 아이를 거둘 사람이 없는지 주민들에게 사정했지만, 안타까워할 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이에 스님은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

"버려진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개미가 몸 전체를 기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이걸 어쩌나' 막연했죠. 아기를 보기 위해 구경꾼이 모여들었지만, 그 누구도 선뜻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직접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창미아오(52) 비구니 스님


9살 얀룬(사진 왼쪽)과 얀린. 창미아오 스님의 30여 딸들은 서로 놀이 친구 및 공부 선생님이 되 주고 있다. 사진출처=Daily mail

1980년 절 문 밖 고아 발견 후
안타까움에 거두기로 마음먹어
현재 생후 3개월~37세 딸 양육
"더 큰 고아원 짓는 것이 꿈"

스님의 딸은 생후 3개월부터 37세까지 다양하다. 보자기에 폭 감겼던 아이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성인이 된 딸만 벌써 20명 이상이다. 엄마인 창미아오 스님을 따라 불교에 귀의하기로 한 딸도 있으며, 북경대를 포함한 일류대학에 진학한 딸도 있다.

딸들은 절에서 직접 법당을 청소하며 창미아오 스님을 돕고 있다. 또한 큰딸들이 작은딸들의 공부 지도를 도맡아할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놀이 친구가 돼주고 있다. 법당 전면에 놓인 칠판은 창미아오 스님이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끼리 삶을 자비롭게 살아가는 법을 전할 때 주로 애용한다. 하지만 학교에 보내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아이들을 반드시 학교에 보냅니다. 절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또래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창미아오 스님의 꿈은 더 큰 고아원을 세워 버려진 아이들의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스님은 "전 세계 모든 부모가 성별, 혹은 장애가 있단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창미아오 스님은 15세에 출가, 1993년부터 하일리안(Hailian) 사찰의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한편 중국 '신화통신'의 2015년 보도에 따르면 중국서 일평균 300여명의 아이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년 10만 명 아이가 고아로 버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원인은 장애 또는 질병 때문이다.

중국 형법은 자녀 유기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로 알려진다. 이에 많은 지자체가 '아이 안전 섬(baby safety islands)'란 고아 돌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中 불자들 채식,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

美 아리조나大 연구논문서 밝혀

채식하는 불자들 덕분에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미국 불교 잡지 '라이언스 로어(Lion's Roar)'는 "중국의 불자들 사이에서 채식주의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각광받고 있다. 이는 지구환경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아리조나 주립대 암페르 교수의 연구 논문 '채식을 하는 중국 불자들에 의한 온실가스배출량 감소의 정량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암페르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불자들이 채식을 함으로써 매년 약 4,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혀졌다. 이 수치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9.2%에 해당한다.

암페르 교수는 논문에서 "현대 사회에서 중국 불교의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을 함으로써 생기는 환경과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면 더 많은 불자들이 채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애리조나 주립대 암페르 교수는 연구논문을 통해 중국 불자들의 도움이 매년 약 4,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라이언스로어

이와 관련 라이언스 로어는 "채식으로 환경보호 효과를 볼 수 있어 이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은 불자들이 채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채식을 하지만 일부 불교국가에서는 채식을 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일반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채식을 독려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

특히 고지대에 위치해 채식보다는 육식을 하는 티베트의 불교 지도자들도 신도들에게 육식을 삼가고 채식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티베트 불교의 한 종파인 카규파의 수장인 카르마파는 채식주의를 장려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는 마티유 리카르스님도 최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채식을 신봉한다고 언급했다.

라이언스 로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기 소비량과 섭취량은 줄인다는 것은 자비심을 발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채식행위는 불자들이 그들과 지구를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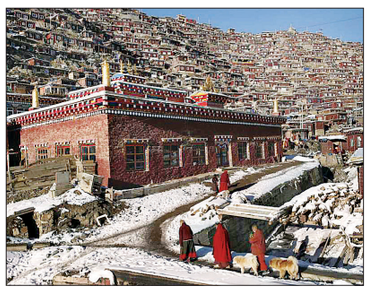
새 티베트 불교센터 건립… "화재 예방"

라렁갈 개발로 절반 이상 내쫓긴 스님들 관련 묵묵부답

라렁갈 철거 작업에 돌입하며 티베트 스님들을 내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중국 정부서부에 티베트 불교학교 센터를 새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언론 '타임즈유니언'은 3월 14일(현지시간) "중국 정부는 안전성과 공중보건시설을 확보해 티베트 스님들이 안전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불교학교센터를 서부에 짓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해 티베트 설타르 불교 연구소가 있는 라렁갈 계곡을 개발해 50퍼센트 이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5천명 이상의 스님을 내쫓은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티베트 최대 불교학원인 '라렁갈 불교 아카데미'는 최대 3만7,000여 수행자가 머물렀던 곳이었으나, 중국의 티베트 불교 탄압 정책이 펼쳐지면서 수행자 1만여 명에서 6개월 만에 500명 미만으로 줄었다. 이 사건으로 소속 비구니 스님 릭진돌마가 "순수한 티베트 승려들을 억압하는 중국의 행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자살한 일도 있었다.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철거작업에 돌입한 라렁갈 계곡 모습. 사진출처=타임즈유니언

해외 감시단은 중국이 라렁갈에 머무는 스님들을 내쫓기 위한 행동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쯔밍 중국 정부 대변인은 "라렁갈의 건물들은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화재발생시 소방관들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밀집한 건물들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시설 개설의 목적은 거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화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중국계 불교 소수 민족 엘렘 빈 수하디(57)와 엘렘 빈 아킴(60)이 아체 주(州) 잔토 시 지방 공무원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했다.

印尼서 불교도 2명, 투계로 채찍질 당해

지방정부법 개정에 따른 감형 조치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2명의 불교도가 투계(鬪鷄)를 벌여 채찍질을 당했다. 국법에 따르면 징역형이지만, 두 사람은 각각 7번과 9번 채찍질을 당한 후 풀려나는 것으로 감형 받았다.

말레이시아 언론 'The star Online' 3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계 불교 소수 민족 엘렘 빈 수하디(57)와 엘렘 빈 아킴(60)이 아체 주(州) 잔토 시 지방 공무원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했다.

두 사람은 1월 투계(鬪鷄)를 벌인 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두 사람은 투계로 내기한 돈 400만 루피(한화 약 7,000만원)와 닭 2마리를 압수당했다.

이슬람법에 따르면 음주와 도박, 동성애가 금지된다. 과거에는 이슬람교도들만 채찍질로 감형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 아체 주는 제도를 전면 개편, 비(非) 이슬람교도들도 국법 또는 시리아법 중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빈 수하디와 빈 아킴 씨는 징역형 대신 채찍질을 당한 것이다.

두 사람은 채찍질 형 직후 AFP통신과 인터뷰서 "우리는 아체 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규제에 복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석가세존 제삼심삼 존자 조사
– 12지신 전생의 인연법 –



석가세존 인연법에 따라 자기띠 월에 맞는 존자님께 기도하면 소원성취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행운달마사에서는 제 33조사 존영과 제칠불보살님을 함께 모시어 기도 발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불자님들의 성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일 마하가섭존자부터 제33대감혜능(육조혜능)대사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사에 알려지지 않은 서른세분의 존상들은 참으로 상상키 어려운 지혜로움과 신통자재하고 무한 자비로운 상호를 갖추고 계십니다. 이에 33존자님들을 황토액자위에 표현하여 직접뵙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행운달마사 주지 혜용 합장

존자 액자 특징
- 액자는 각 존자님들의 존영을 황토 바탕에 그린것입니다.
- 황토 액자속의 열선이 있어 120℃까지 온도가 올라가 복사열이 발생됩니다.
- 인연법에 따른 자기띠에 맞는 존자님을 알려드립니다.

울산 행운달마사 052)242-0108, 010-2003-0658